

가난하신 예수님을 읽

영신수련의 「두 개의 깃발」 묵상에서 이냐시오는 예수님을 가난하고 무력하고 겸손한 분으로 묘사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알게 될수록 신적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네 복음서는 각각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 불린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성품이나 활동의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한 저자들이 성령께 감도되어 쓴 것이다. 각 복음서는 여러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지닌 기억을 반영했고, 각기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하여 쓰였기 때문에 각기 고유한 특성이 담겨 있다.

이냐시오가 영신수련에서 묘사한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냐시오가 이끄는 대로 상상력을 사용하여 복음의 사건들을 관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면모 한 가지가 부각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난이다. 가난은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이냐시오가 한결같이 사용한 말이다. 이에 상응하는 단어는 겸손 *humility*이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흙” 또는 “땅”을 뜻하는 후무스 *humus*이다. 겸손한 사람은 가난하며 가진 것이 거의 없거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땅의 사람

이다.

이나시오가 품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이미지이다. 바오로 사도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찬가를 인용하며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 2,6-8)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강생하시어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은 지상의 삶 안으로 들어와 가난을 끌어안으셨다. 하느님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시어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신 것이다. 그분의 부모가 잔인한 폭군을 피해 아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라 난민이 되셨다. 나중에 그분은 나자렛에서 노동자의 삶을 소박하게 살았고, 아내와 자식은 물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설교자이며 스승이 되셨다. 그분은 철저히 가난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

다. 옷마저 벗겨진 채, 처형당하고 버려진 범죄자가 되어 남의 무덤에 묻히셨다.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다.

이나시오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은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넘치는 선물과 은총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즉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보기이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모두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셨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역설적인 것은 그 끝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 사랑을 제약하지 못한다. 하느님이 그분을 되살리셨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나시오는 이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이나시오의 초대는 영신수련의 핵심적인 순간들 중 하나인 「세 가지 방식의 겸손」 묵상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가 숙고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겸손해진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방식의 겸손은 예수님과 심각하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나시오는 이것을 “나는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어떤 일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겸손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겸손이다.

둘째 방식의 겸손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차이도 없게 하려 애쓸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 머무르려는 열망이다. “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나이다.”라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둘째 방식의 겸손이다.

셋째 방식의 겸손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배척을 우리도 경험할 정도로 예수님과 깊이 일치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에도 기꺼이 고통을 껴안는 것이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시에 버림받은 자요 바보로 취급받았다. 우리도 이 시대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기꺼이 예수님과 똑같이 여겨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얼마나 일치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데에는 물론 위의 세 가지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겸손의 단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최소와 최대 사이에는 가난한 예수님의 삶을 어느 정도로 따르고자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지점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연속적인 단계의 스펙트럼을 따라 움직인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게 되는 기회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앞에 주어진다.

이나시오는 선택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란다. 「세 가지 방식의 겸손」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선택이 어떤 것들인가를 알게 된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성부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오직 성부께서 원하시는 일만 행하신다. 그분은 “파견받은” 분이시다. 그분은 필립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요한 14,9)

완전한 겸손을 지닌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이와 똑같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할 것이고, 우리의 소유는 오직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뿐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존재를 드러내는 정체성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로 요약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정체성 안에서 진정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